

# 광주·전남 대학가 등록금 환불 깊은 고민

### 건국대 2학기 감면 방침에 지역대학들 조심스럽게 해결책 모색 재정 결손 우려 속 전문가들 “현실적 대안 마련 정부에 건의해야”

건국대의 올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방침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1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비대면 강의 탓에 수준 낮은 수업이 많았으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인 건국대의 결정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장단의 등록금 반환 요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등록금의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설득력

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아직 2학기 등록금 감면을 최종 결정할 곳은 없지만, 대다수가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대학은 수업과 지출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교직원들의 성급을 통해 기금을 조성, 생계가 어려운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여론 추이와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도 연구중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2학기 등록금 감면은

대학별 액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 정서상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학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되, 이로 인해 사실상 10년 가까이 수업료를 동결한 대학들의 재정 결손은 재난 수준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분배 지원하는 혁신사업 지원비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등을 정해진 사업 외에, 수업료 감면에 한해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의 사업비와 대학 자체 예산, 그

리고 정부의 별도 지원액 등을 망라해 2학기 수업료를 감면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A대학의 관계자는 “등교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원격수업을 위한 설비 비용 등 상당한 예산이 지출됐다”면서 “현 상태에서 수업료를 감면하려면 솔직히 교직원의 월급을 강제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B대학 관계자는 “수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데다 학생 수가 줄면서 현재 재정으로 수업료를 반환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서 “비대면 수업이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한 현상인 점을 감안,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시속 50km 도로서 중앙선 침범 121km 질주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 충돌 사망케한 남편

### 해남경찰, 50대 구속 송치

경찰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남경찰은 최근 살인·교통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10분께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아내(47)의 모닝 차량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모닝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차량 탑승자들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시속 100km 이상 달

리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직선 도로를 121km로 주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부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점, 전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남악에 거주하는 부인을 만나려고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던 길, 부인의 차를 발견하고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아내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량을 멈춰세우려다가 벗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현혈한 임영웅 팬들 이것이 진정한 팬심

16일 트롯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응시대’ 광주 전남 응원방 회원들이 현혈의집대응센터에서 현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응시대 회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임영웅의 생일인 6월 16일을 기념해 “6X16=96”이라는 의미를 담아 96명이 현혈에 참여했다.

/최현배 기자 choi@

## 근무 안한 부인에게 급여 명목 수천만원 지급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횡령금 돌려줘야”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부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지급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세화아이엠씨가 전 대표이사 A씨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해 67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화아이엠씨는 A씨 부인이 세화아이엠씨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전 대표이사였던 A씨가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6700만원을 지급하게 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또 세화아이엠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중국 법인도 급여 명목으로 A씨 부인에게 9억8900여만원을 지급한 데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세화아이엠씨가 전 대표이사 A씨 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12억 6100만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또 A씨에 대해 세화아이엠씨 중국 법인 중 한 곳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

하고 차액 3억7400만원을 횡령한 데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공모해 횡령한 세화아이엠씨 돈 6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운영자금이나 미지급 급여, 부인에 대한 미지급 등기이사 보수 정산을 위해 회사가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화아이엠씨가 중국 회사들의 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고 세화아이엠씨와 해당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며 “세화아이엠씨가 직접 A씨 등에게 각 횡령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1981년 설립된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몰드)·제조설비 전문기업으로, 미주·유럽, 중국 등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전 경영진 일가의 비리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사람잡은 경사로 주차... 밀리는 차량 멈추려다 60대 사망

###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미끄럼 방지 등 적극 홍보 시급

아파트 지상주차장 경사로에 세워놓은 차량에 60대 여성이 부딪혀 숨졌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차주인 A(여·66)씨가 차량과 함께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경사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다 뒤로 밀리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차문을 잡고 운전

석에 올라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럼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광주시가 적극적인 홍보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시는 공영주차장 중 경사진 주차면이 있는 주차장에 대한 안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하준이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에서 파악한 경사진 공용주차장은 11곳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민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경우 차량 타이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자동차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 놓는 습관을 갖는 게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고교 온라인 수업 무단 접속 성기 노출한 10대 검거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6일 “광주의 한 고교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침해·음란물 유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2일 광주의 한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

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교육청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학교 재학생은 아닌 외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